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하 아 영¹⁾

조 한 익²⁾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와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 7,324명이다. 본 연구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는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은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와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교과 자기효능감, 조절된 매개

1)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중학생들에게 희망직업에 대한 선택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며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단기적으로는 중학교 이후 어떠한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전현정, 정혜원, 2018),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는 생애 전반적 진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매향, 임은미, 2004). 중학생들의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의 적성이나 신념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성숙도라고 본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시키는 발달 정도로 일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이현미, 정제영, 2017; Crites, 1973; Super, 1957). 최근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2015; 오석영, 2012; 이현미, 정제영, 2017; 임현희, 조한익, 2018). 그동안 진로성숙도는 동기요인(전현정, 정혜원, 2018),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김동일 외, 2015; 이현미, 정제영, 2017)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학생들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

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신념에 따라 목표 추구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 방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볼 때(Cho, 2013; Dweck, 1999; Dweck & Master, 2009)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암묵적 신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같은 변화에 대한 잠재성과 더불어 도전적인 일들을 시도하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잘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기도 한다(Blackwell, 2002; Eccles, Lord, & Midgley, 1991).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내적인 신념을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라고 한다(Dweck & Leggett, 1988; Dweck & Master, 2009).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신념, 견해 및 태도 등의 총체를 말하며 동기, 성격, 진로와 관련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경, 2010; Blackwell, 2002; Cho, 2013; Dweck, 1999).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중에서 향상신념은 지능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며 고정신념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에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들기도 한다(Bandura & Dweck, 1981; Cho, 2013). 이는 지능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목표에 대해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ho, 2013). 최근에 지능에 대한 암묵

적 신념에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 Dweck, 1999, 2016; Dweck & Master, 2009; Heslin, Keating, & Minbashian, 2018). 하지만 김복환 외(2019)의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향상신념의 종단적 변화만을 살펴봄으로써 향상신념의 초기치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향상신념의 변화율은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어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을 모두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에서 나타나는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은 서로 다른 특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Dweck, 1999, 2016). 일반적으로 진로성숙도가 진로문제에 대한 준비행동이며 자신의 성장을 위한 부분이라는 연구들을 볼 때(황매향, 임은미, 2004; Farrell & Horvath, 1999) 중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에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체의식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경미, 안은선, 오은주, 2018; 김동일 외, 2015; 문재우, 박재산, 2013).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특성(Deweck & Master, 2009; Dweck & Molden, 2017)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노력하고 협력하는 적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Chen & Tutwiler, 2017). 하지만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중학생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회피하려는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이영주, 김덕진, 2019; Cho, 2013; Dweck, 2008).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이주희, 2011; 조한익, 김영숙, 2016). 특히, 공동체 속에서 청소년들은 서로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진로선택에 있어 독립성과 주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미, 권윤정, 2015; 진현정, 정혜원, 2018).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중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중학생들이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은 학업영역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학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교과이다(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5; 정예화, 정제영, 2017). 이 시기에 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진로목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공윤정, 2011; 김복환 외, 2019; 박혜숙, 전명남, 2007).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자기효능감은 교과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 특수성이 있어 교과별로 효능감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Bandura, 1997;

Pajares & Urdan, 2006; Xu et al., 2013). 학업영역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교과마다 특성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Bandura, 1993, 1997,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에 따라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류수민, 2019;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McWilliams, 2015). 이렇게 볼 때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영주, 김덕진, 2019; Bandura, 1997; Bandura & Dweck, 1981, 1985; Dweck, 1999, 2008)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김동일 외, 2015; Schultheiss, 2003; 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Skorikov & Vondracek, 1998)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Banaji & Prentice, 1994; Bandura, 1986; Huang, Zhang, & Hudson, 2019; Schunk, 1984). 이러한 연구를 볼 때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매개효과가 조절된 것으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라고 한다. 이는 Hayes(2018)의 조건적 과정, Muthén, Muthén, 및 Asparouhov(2016)의 조절된 매개효

과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와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변인들의 개념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론이다(Dweck, 1999; Dweck & Leggett, 1988; Dweck & Master,

2009).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정신념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에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며 향상신념은 지능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이다(Blackwell, 2002; Dweck, 1999).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심리적 구인으로 조직 혹은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유대감이나 소속감 등으로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다(박수원, 김셋별, 2016; McMillan & Chavis, 1986). 공동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에 공동의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형성되는 것이다(박재숙, 2010; Cicognani et al., 2008).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의지(이현미, 정제영, 2017; 전현정, 정혜원, 2018; Crites, 1973),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의 결정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정도(길혜지, 윤지윤, 2015)를 의미한다. 진로성숙도란 동일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 간의 상대적 진로발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김성경, 2008).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에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나 신념으로(Bandura, 1997, 2000) 인지, 정서,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의 특수한 영역인 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특정 교과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신념을 뜻한다(김아영, 2010; Pajares & Urdan, 2006). 그동안 중학생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연구되어 온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교과이다(김태은 외, 2015; 박선화, 상경아, 2011). 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해당 교과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좌절보다는 성공적 수행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Bandura & Dweck, 1981, 1985; Dweck, 1999).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개인의 지적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목표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으며 목표달성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주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한다(Bandura, 1993, 1997). 반면에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열정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진다(이영주, 김덕진, 2019; Dweck, 1999, 2016; Dweck & Master, 2009; Wood &

Bandura, 1989).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향상신념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Dweck(2016), Molden과 Dweck(2006)의 연구에서 향상신념은 진로에 대한 목표 달성의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향상신념은 진로성숙도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복환 외, 2019).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개인의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향상신념은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김지경, 2010; Cho, 2013; Dweck, 2016; Dweck & Master, 2009; Heslin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동체의식은 진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변인으로,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은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승태, 박몽진, 2003), 구성원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2005). 공동체의식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15; 박은정 외, 2016; 이주희, 2011; 전현정, 정혜원, 2018; 조한익, 김영숙, 2016).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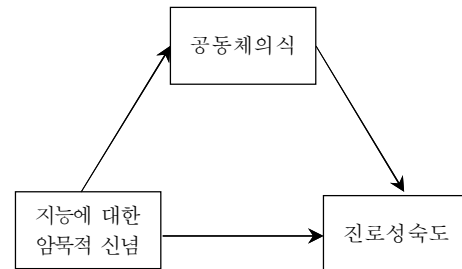


그림 1.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연구들을 볼 때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목표의 선택과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김성화 외, 2020; Bandura, 1997; Pajares & Urdan, 2006).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교과와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연구되고 있다(김성화 외, 2020; Bandura, 2000; Elliott & Dweck, 1988).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성화 외, 2020; 류수민, 2019; Dweck & Master, 2009)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희, 백광진, 정상인, 이유정, 2008; Caprara, Pastorelli, &

Bandura, 1992; Chen & Usher, 2013; Dweck & Master, 2009).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관계형성, 공동체의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명숙, 2007; Caprara et al., 1992), 진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진로성숙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복순, 김영혜 2011; 김영혜, 안현의, 2012; 최인선, 주은지, 2013; Bandura, 1997; Lent, Brown, & Hackett, 1994). 또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Banaji & Prentice, 1994; Bandura, 1986; Huang et al., 2019; Schunk, 1984).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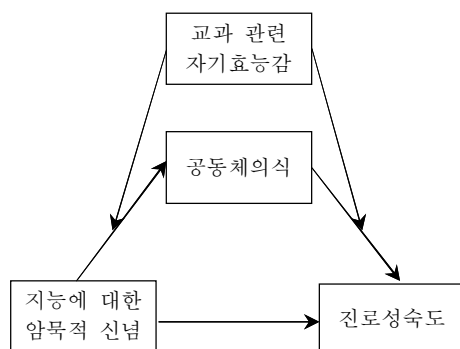


그림 2.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이다. 이 패널자료는 전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24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2015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전체 7,3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3,623명(49.5%), 여학생은 3,701명(50.5%)이다.

2. 측정도구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지능에 관한 신념 척도이다. 지능에 관한 신념의 문항은 고정신념 3문항(예. 똑똑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다), 향상신념 3문항(예. 지금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으로 전체 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에 관한 암묵적 신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고정신념은 .792로 나타났고, 향상신념은 .877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 척도

공동체의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 척도이다. 공동체의식 척도는 참여의식 4문항(예.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타인배려 4문항(예.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협력학습 4문항(예. 학교 공부가 뒤쳐진 친구들을 돕는다), 전체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의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89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5문항(예.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진로계획성 5문항(예.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일에 대한 태도 5문항(예.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전체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에 대한 태도 문항 중 11번, 12번, 13번 문항은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7로 나타났다.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자기효능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사용

한 척도이다.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은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은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영어내용을 이해할 자신감이 있다’이고,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은 ‘수학교과와 관련된 과제를 잘 할 자신이 있다’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은 .918,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944,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93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와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변인들은 모두 센터링을 하여 평균이 0이 되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인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의 모형 4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수 5,000개와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인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의 모형 58을 사용하였으며 조절효과의 유의

성 영역은 Johnson-Neyman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와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수 5,000개와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공동체의식의 상관은 $-.23(p < .01)$, 진로성숙도와는 $-.31(p < .01)$ 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공동체의식은 $.36(p < .01)$, 진로성숙도와는 $.41(p < .01)$ 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상관은 $.54(p < .01)$ 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은 $-.14(p < .01) \sim -.11(p < .01)$ 로 나타났고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은 $.24(p < .01) \sim .27(p < .01)$ 로 나타났다.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은 공동체의식과의 상관이 $.40(p < .01) \sim .44(p < .01)$ 로 나타났고 진로성숙도와는 상관은 $.32(p < .01) \sim .40(p < .01)$ 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범위는 $-.70 \sim .50$, 첨도의 범위는 $-.22 \sim 1.10$ 으로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ancock & Mueller, 2006; Kline, 2016).

1. 연구문제 1의 결과: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을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으로 구분하고 진로성숙

표 1.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기초통계

	지능 고정신념	지능 향상신념	공동체 의식	진로 성숙도	국어교과 자기효능감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지능 고정신념	1.00						
지능 향상신념	-.41**	1.00					
공동체의식	-.23**	.36**	1.00				
진로성숙도	-.31**	.41**	.54**	1.00			
국어교과 자기효능감	-.14**	.27**	.44**	.40**	1.00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11**	.24**	.40**	.35**	.51**	1.00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11**	.26**	.40**	.32**	.47**	.54**	1.00
M	.00	.00	.00	.00	.00	.00	.00
SD	.63	.57	.57	.56	.64	.75	.72
왜도	.50	-.70	-.08	-.12	-.20	-.20	-.10
첨도	.67	1.10	.17	.03	.33	-.22	-.11

** $p < .01$.

표 2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변인	B	SE	t	p	95% CI	변인	B	SE	t	p	95% CI
공동체의식	고정신념	-.20	.01	-20.31	.000	-.23~- .18	향상신념	.36	.01	33.82	.000	.34~.39
	고정신념	-.18	.01	-20.80	.000	-.20~- .16	향상신념	.24	.01	24.60	.000	.22~.26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49	.01	50.92	.000	.47~.51	공동체의식	.45	.01	44.81	.000	.43~.47
공동체의식		B		-.10			공동체의식		B		.16	
매개효과		95% CI		-.11~- .09			매개효과		95% CI		.15~.18	

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ootstrap 표본은 5,000번으로 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표 2와 같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B = -.20, p < .01$), 공동체의식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9, p < .01$). 이렇게 볼 때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동체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B = .36, p < .01$) 공동체의식도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5, p < .01$).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도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동체의식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중학생의 지능에 대

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떠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와의 검증은 Bootstrap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5,000번의 표본과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 p < .05$).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도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4, p < .01$).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과,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수학교과 자기효

표 3.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과	변인	B	SE	t	p	95% CI	변인	B	SE	t	p	95% CI
국어	고정신념	-.15	.01	-16.52	.000	-.17~-13	항상신념	.26	.01	25.51	.000	-.01~.01
	자기효능감	.36	.01	40.02	.000	.35~.38	자기효능감	.32	.01	35.02	.000	.30~.34
	고정신념× 자기효능감	-.01	.01	-.33	.740	-.02~.01	항상신념× 자기효능감	.01	.01	1.07	.284	-.01~.03
영어	고정신념	-.17	.01	-17.82	.000	-.18~-15	항상신념	.28	.01	26.97	.000	.26~.30
	자기효능감	.29	.01	36.89	.000	.27~.30	자기효능감	.25	.01	32.00	.000	.23~.27
	고정신념× 자기효능감	-.02	.01	1.97	.048	-.02~.01	항상신념× 자기효능감	.01	.01	.43	.663	-.01~.02
수학	고정신념	-.17	.01	-17.70	.000	-.18~-15	항상신념	.28	.01	26.85	.000	.26~.30
	자기효능감	.29	.01	36.01	.000	.28~.31	자기효능감	.25	.01	30.55	.000	.23~.27
	고정신념× 자기효능감	.01	.01	.22	.822	-.19~.02	항상신념× 자기효능감	.04	.01	3.46	.000	.01~.06

표 4.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

영어 자기효능감					수학 자기효능감				
경로	조건부효과		B	95% CI	경로	조건부효과		B	95% CI
	값	%				값	%		
지능에 대한	-.78	16%	-.18 [*]	-.21~-16	지능에 대한	-.71	16%	.25 ^{**}	.22~.28
고정신념	.00	50%	-.17 [*]	-.18~-15	항상신념	.03	50%	.28 ^{**}	.26~.30
→공동체의식	.96	84%	-.15 [*]	-.17~-12	→공동체의식	.78	84%	.31 ^{**}	.29~.34

* $p < .05$. ** $p < .01$.

능감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Johnson-Neyman의 방식을 사용하여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를 16%, 50%, 84%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16%, 50%, 84%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18, -.17,

-.15로 고정신념의 전 범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신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낮아지지만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적 영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지능에 대한 항상신념에서는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기울기가 .25, .28, .31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모든 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신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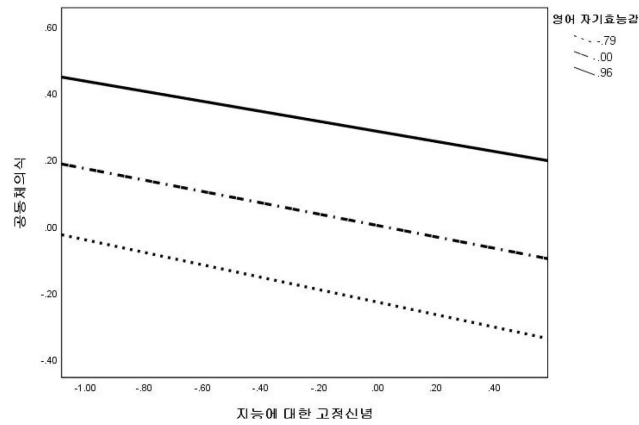


그림 3.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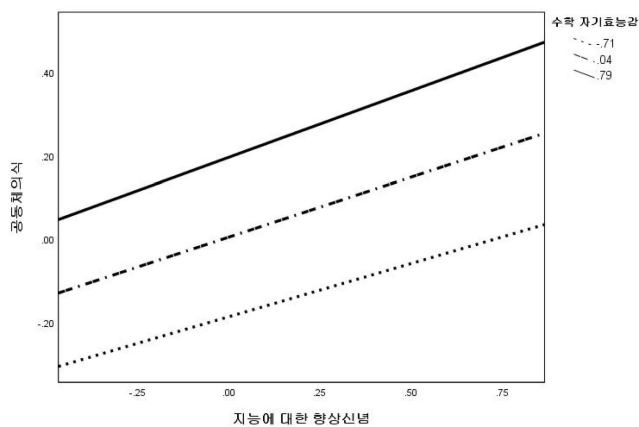


그림 4.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준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그림 4에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5,000개의 표본과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에서 공동체의식은 국어교과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 = .06, p < .01$). 공동체의식과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05, p < .01$), 공동체의식과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5, p <$

표 5.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과	변인	B	SE	t	p	95% CI	변인	B	SE	t	p	95% CI
국어	고정신념	-.17	.01	-20.38	.000	-.19~-.15	향상신념	.22	.10	22.68	.000	.20~.24
	공동체의식	.41	.01	39.66	.000	.39~.43	공동체의식	.38	.01	36.31	.000	.36~.40
	자기효능감	.16	.01	17.88	.000	.14~.18	자기효능감	.14	.01	15.67	.000	.12~.16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6	.01	5.12	.000	.03~.08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6	.01	5.50	.000	.04~.08
영어	고정신념	-.17	.01	-20.70	.000	-.19~-.16	향상신념	.23	.01	23.18	.000	.21~.25
	공동체의식	.43	.01	41.65	.000	.41~.45	공동체의식	.40	.01	39.99	.000	.38~.42
	자기효능감	.11	.01	14.91	.000	.01~.13	자기효능감	.09	.01	12.73	.000	.08~.11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5	.01	4.87	.000	.03~.07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5	.01	4.99	.000	.03~.07
수학	고정신념	-.18	.01	-20.59	.000	-.19~-.16	향상신념	.23	.01	23.29	.000	.21~.25
	공동체의식	.45	.01	43.07	.000	.42~.47	공동체의식	.42	.01	39.51	.000	.39~.44
	자기효능감	.08	.01	10.81	.000	.07~.10	자기효능감	.66	.01	8.21	.000	.05~.08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5	.01	4.48	.000	.02~.07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05	.01	4.66	.000	.03~.07

표 6.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

교과	지능의 고정신념				지능의 향상신념			
	자기효능감 조건부효과		B	95% CI	자기효능감 조건부효과		B	95% CI
	값	%			값	%		
국어	-.60	16%	.37**	.35~.40	-.60	16%	.34**	.32~.37
	.14	50%	.42**	.40~.44	.14	50%	.39**	.37~.41
	.64	84%	.45**	.42~.48	.64	84%	.42**	.40~.45
영어	-.78	16%	.39**	.36~.41	-.78	16%	.36**	.35~.38
	.00	50%	.43**	.41~.45	.00	50%	.40**	.38~.42
	.96	84%	.48**	.45~.51	.96	84%	.45**	.42~.48
수학	-.71	16%	.41**	.38~.43	-.71	16%	.38**	.35~.40
	.03	50%	.45**	.43~.47	.03	50%	.42**	.40~.44
	.78	84%	.49**	.46~.51	.78	84%	.46**	.43~.48

** $p < .01$.

.01).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에서 공동체의식은 국어교과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 = .06$, $p < .01$). 공동체의식과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05$, $p < .01$), 공동체의식과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5$, $p < .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ohnson-Neyman의 방식을 사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를 16%,

50%, 84% 수준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6과 같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에서 공동체의식은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16%, 50%, 84%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에서 공동체의식은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과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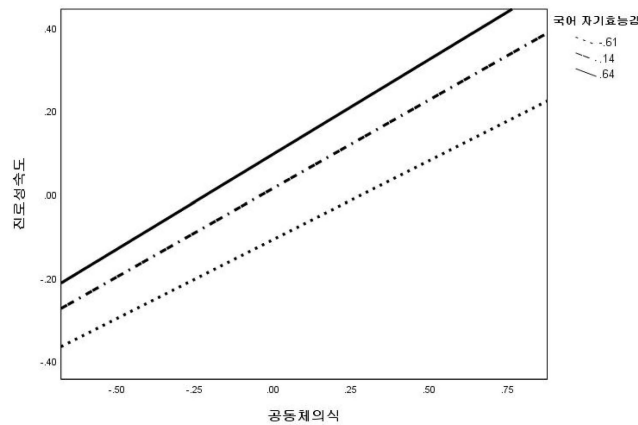


그림 5.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고정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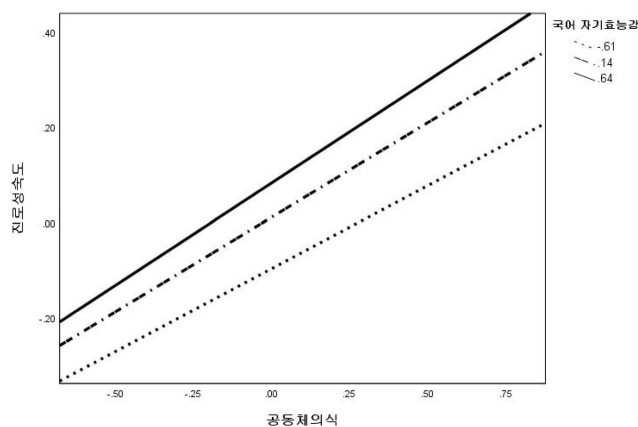


그림 6.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향상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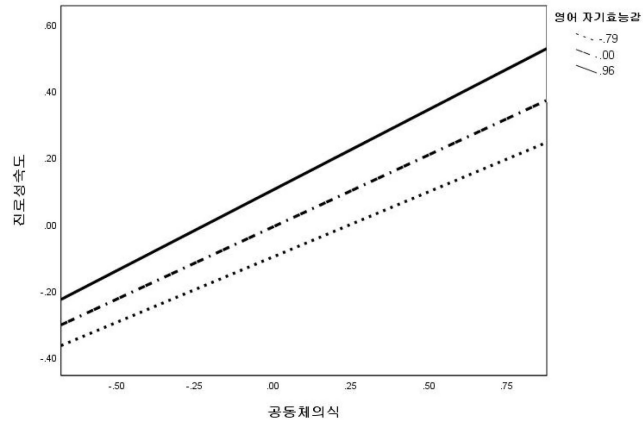


그림 7.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고정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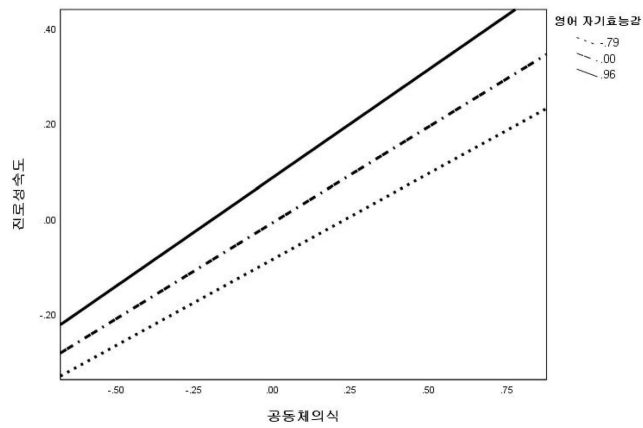


그림 8.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항상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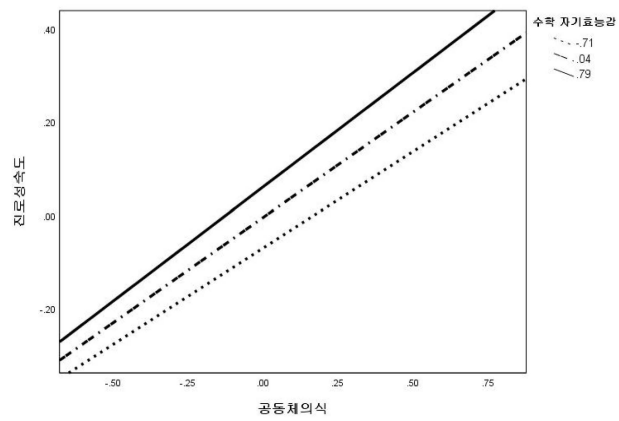


그림 9.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고정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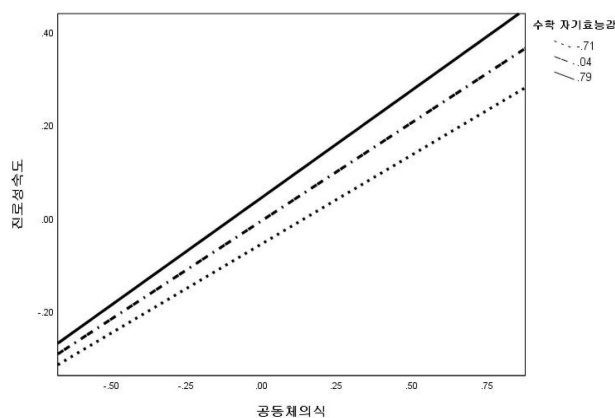


그림 10.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항상신념)

작용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16%, 50%, 84%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건부효과를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그림 5~그림 10과 같다.

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와 더불어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능에 대한 항상신념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개인의 목표달성 과정과 진로 관련 변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항상신념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경, 2010;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19; Cho, 2013), 지능에 대한 항상신념이 진로성숙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복환 외, 2019)와 관련된다. 진로성숙도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지각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성준향, 박용한, 2018; Gillholm, Erdeus, & Gärling, 2000)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진로성숙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항상신념은 중학생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하여 진로에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를 습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지능에 대한 항상신념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영주, 김덕진, 2019; Wood & Bandura, 1989),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인 태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박철우, 2020; Bandura, 1997)와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높아질수록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대처방식이 떨어지고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높아질수록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Dweck, 1999, 2016; Dweck & Master, 2009).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정적인 사고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이영주, 김덕진, 2019; Dweck, 2016). 하지만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김복환 외, 2019; 이현미, 정제영, 2017; Dweck, 2016). 또한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동기를 형성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엄혜선, 이은주, 2018; 채민정, 이은주, 2018; Dweck & Master, 2009). 본 연구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교육현장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지능에 대한 향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친구들과 함께 지능에 대한 증진 가능성에 관해 탐구하는 등(임경미, 김경희, 박병기, 2007; 임경미, 박병기, 2008)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향상신념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낮아지는데(이영주, 김덕진, 2019; Dweck, 1999, 2016) 여기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질수록 부정 기울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만한 부정 기울기를 보이는 반면에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 기울기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은 공동체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은 협력학습과 같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학습 환경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윤경, 이선영, 송주연, 우연경, 2017; Nie & Lau, 2010).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학습을 진행할 때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이더라도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류수민, 2019; Dweck, 1999; Dweck & Leggett, 1988).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이 높은 학생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성적을 유지하기 힘든 수학교과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공동체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임혜정, 2016; Blackwell et al., 2007; Dai & Cromley, 2014). 이와 더불어, 수학교과의 경우 학급 구성원들과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학습하는 것이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집단 내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되는 학생일수록 수학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또래와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유근미, 김수연, 2010; 이형주, 고호경, 2015; Dweck & Master, 2009; Wood & Bandura, 1989). 이러한 결과들은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며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다(민윤희, 장성화, 2013; 정홍미, 2020; Dweck & Master, 2009). 하지만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교과에서 국어 교과의 상대적 비중, 교과 운영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본다(박현정, 신태수, 하여진, 이준호, 2011). 국어교과는 영어나 수학교과에 비해 사교육의 비중이 적으며(박현정 외, 2011),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영어나 수학교과와 같이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형태보다는 반복적 읽기, 쓰기와 같은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박태호, 2008; 이정화, 2010). 이러한 이유로 영어, 수학교과와는 달리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국어교과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andura, 1993, 1997; Schunk & Swartz, 1993). 하지만 국어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지는 경우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데(Dweck, 1999, 2016; Dweck & Master, 2009; Heslin et al., 2018) 이 부분이 통제된 이후 공동체의식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을 가진 중학생들도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을 가지는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데(김복환 외, 2019; Dweck, 1999, 2016; Dweck & Master, 2009; Heslin et al., 2018) 이 부분이 통제된 이후에도 공동체의식과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향상신념을 통제하더라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성화 외, 2020; Bandura, 1997; Dweck & Master, 2009). 본 연구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향상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임을 확인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은 학생중심 수업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정윤경 외, 2017; McCombs, Daniels, & Perry, 2008) 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협력하며 이들 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본바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이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임을 시사하며, 중학생들이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보다는 향상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임경미 외(2007)의 연구, 임경미와 박병기(2008)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변화신념 프로그램의 반복적 개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개입을 통한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의 향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로성숙도 향상 프로그램 개입 시 지능변화신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바 있다. 본 연구 결과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교과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영어교과 자기효능감은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영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인 중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교과의 전반적 자기효능감 보다는 구체적인 교과에 근거한 자기효능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국어, 영어 및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학업 영역과 관련하여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과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연구함으로써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향상신념은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고정신념은 진로성숙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부분이 안정적인지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경로에서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들을 통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개인내적 신념과 공동체의식 및 교과 관련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도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연구해야 하는 학년들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학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복순, 김영혜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동서정신과학*, 14(2), 29-42.
- 공윤정 (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9(1), 127-141.
- 교육부 (2019).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길혜지, 윤지윤 (2015). 고등학생 유형 결정요인 탐색: 진로성숙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4(6), 73-91.
- 김경미, 안은선, 오은주 (2018). 중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공동체의식,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연구*, 24(4), 506-516.
- 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지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급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1), 1-22.
- 김명숙 (2007). 혼합형 수업에서 학급공동체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8(3), 23-54.
- 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 초기 청소년의 성장신념,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19(5), 39-59.
- 김성경 (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성화, 정서연, 박윤아, Jiamin Low, 임비인, 봉미미 (2020). 지능 고정신념과 성취목표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성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3(1), 119-142.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 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유미, 권윤정 (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22(2), 93-111.
- 김지경 (2010). 지능에 대한 신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6(6), 99-116.
- 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5).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의 교과태도 및 학교행복감 차이 분석. **초등교육연구**, 28(4), 61-89.
- 류수민 (2019). 중학생의 고정 마인드셋, 교과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저소득층 여부의 매개된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박몽진 (2003). 공업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177-192.
- 문재우,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 민윤희, 장성화 (2013). 초등학생의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교육**, 22(3), 123-137.
- 박선화, 상경아 (2011).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 특성 및 영향 요인. **학교수학**, 13(4), 697-716.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철우 (2020). 성장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직원몰입과 협력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호 (2008). 교실 문화개선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개선해야 할 초등 국어수업 문화와 교사 대응. **청어람어문교육**, 38, 7-36.
- 박현정, 선택수, 하여진, 이준호 (2011).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패턴과 관련 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2), 291-316.

- 박혜숙, 전명남 (2007).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 본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생, 교사 및 학교특성의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21(1), 145-168.
- 성춘향, 박용한 (2018). 청소년기 생애목표지향의 종단적 변화 탐색: 학생·학교수준 예측변인과 진로성숙도 결과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97-122.
- 안도희, 백광진, 정상인, 이유정 (2008). 의과대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을 예측하는 변인 탐색: 인지적, 정의적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한국의학교육*, 20(3), 219-229.
- 엄혜선, 이은주 (2018). 중학생의 또래관계 변화신념, 사회적 성취목표, 갈등해결전략, 또래관계 질 및 공격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32(2), 295-319.
- 오석영 (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학희망계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유근미, 김수연 (2010). 수학학습부진아의 또래교사 역할 경험이 분수연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9(2), 31-49.
- 이경화 (2010). 학습클리닉 부진학생 국어(읽기) 학습 콘텐츠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 42, 243-269.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영주, 김택진 (2019).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또래관계: 그릿,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2), 209-222.
- 이주희 (201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 정제영 (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교육중단연구(GEPS)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이형주, 고호경 (2015). 협동학습 및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5(1), 113-137.
- 임경미, 김경희, 박병기 (2007). 지능변화신념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885-904.
- 임경미, 박병기 (2008). 지능변화신념 프로그램의 반복적용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22(4), 743-762.
- 임현희, 조한익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32(3), 115-143.
- 임혜정 (2016). 가정배경이 중학생의 수학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장신념과 교과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2), 117-143.
- 전현정, 정혜원 (201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 특성 변인 및 학생 특성 변인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13-240.
- 정예화, 정제영 (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

-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20.
- 정윤경, 이선영, 송주연, 우연경 (2017). 학습자가 지각하는 교수방식과 동기, 수업태도 및 학업성취와의 차별적 관계: 자기효능감 수준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9(1), 211-235.
- 정홍미 (2020). 학교협동조합 운영 고등학교 재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19).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56-256.
- 채민정, 이은주 (2018). 청소년의 지적능력과 인기에 대한 암묵적 신념, 학업적 및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수업참여 및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2(3), 525-548.
- 최인선, 주은지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169-206.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1), 297-332.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0). Exercise of human agency through collective efficac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3), 75-78.
- Bandura, M., & Dweck, C. S. (1981). *Children's theories of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hievement goals*. Unpublished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 Bandura, M., & Dweck, C. S. (1985). *The relationship of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goals to achievement-related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
- Blackwell, L. S. (2002). *Psychological mediators of student achie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Caprara, G. V., Pastorelli, C., Bandura, A. (1992). *Impact of perceived academic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and emotional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 Chen, J. A., & Tutwiler, M. S. (2017). Implicit theories of ability and self-efficacy: Testing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to science motivation.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225, 127-136.
- Chen, J. A., & Usher, E. L. (2013). Profiles of the sources of science self-efficac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1-21.
- Cho, H. I.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effort belief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hievement emo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1(3), 35-56.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97-112.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New York: McGraw-Hill.
- Dai, T., & Cromley, J. G. (2014). Changes in implicit theories of ability in biology and dropout from STEM majors: A latent growth curve approa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9(3), 233-247.
- Dweck, C. S. (1999).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Dweck, C. S. (2008). Can personality be changed? The role of beliefs in personality and chang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6), 391-394.
- Dweck, C. (201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Dweck, C. S., & Master, A. (2009). Self theories and motivation: Students' beliefs about intelligence. In K. R. Wentzel & A. Wigfield (Eds.), *Handbook of motivation at school* (pp. 123-140). New York: Routledge.
- Dweck, C. S., & Molden, D. C. (2017). Mindsets: Their impact on competence motivation and acquisition. In A. J. Elliot, C. S. Dweck, & D. S. Yeager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122-140). New York: Guilford Press.
- Eccles, J. S., Lord, S., & Midgley, C. (1991). What are we doing to early adolescents? The impact of educational contexts on early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9(4), 521-542.
- Elliott, E., & Dweck, C. S. (1988).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5-12.
- Farrell, S. J., & Horvath, P. (1999). Career maturity and work motivational orientation:

- Predictors of vocational choice certainty. *Guidance & Counseling*, 15(1), 16-21.
- Gillholm, R., Erdeus, J., & Gärling, T. (2000). The effect of choice on intention behavior consistenc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1), 1-17.
- Hancock, G. R., & Mueller, R. O. (200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cond course*.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eslin, P. A., Keating, L. A., & Minbashian, A. (2019). How situational cues and mindset dynamics shape personality effects on career outcomes. *Journal of Management*, 45(5), 2101-2131.
- Huang, X., Zhang, J., & Hudson, L. (2019). Impact of math self-efficacy, math anxiety, and growth mindset on math and science career interest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gender moderating effe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4(3), 621-640.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McCombs, B. L., Daniels, D. H., & Perry, K. E. (2008). Children'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learner-centered practices, and student motivation: Implications for early schooling.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9(1), 16-35.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cWilliams, E. C. (2015). *Self-efficacy, 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 goal orientation and the ninth grade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Massachusetts.
- Molden, D. C., & Dweck, C. S.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3), 192-203.
- Muthén, B., Muthén, L. & Asparouhov, T. (2016). *Regression and mediation analysis using Mplus*. Los Angeles: Muthén & Muthén.
- Nie, Y., & Lau, S. (2010). Differential relations of constructivist and didactic instruction to students' cognition, motivation, and achievement. *Learning and Instruction*, 20(5), 411-423.
- Pajares, F., & Urdan, T. (2006). *Self-efficacy beliefs in adolescent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Schultheiss, D. P. (2003).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oretical 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3), 301-310.
- Schultheiss, D. P., Kress, H., Manzi, A., & Glasscock,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study. *The*

-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39.
- Schunk, D. H. (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4), 548-556.
- Schunk, D. H. (1984). Self 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1), 48-58.
- Schunk, D. H., & Swartz, C. W. (1993). Writing strategy instruction with gifted students: Effects of goals and feedback on self efficacy and skills. *Roeper Review*, 15(4), 225-230.
- Skorikov, V., & Vondracek, F. W.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1), 13-35.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Wood, R.,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 Xu, M. K., Marsh, H. W., Hau, K. T., Ho, I. T., Morin, A. J., & Abduljabbar, A. S. (2013). The internal/external frame of reference of academic self-concept: Extension to a foreign language and the role of language of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2), 489-503.

1 차원고접수 : 2020.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9. 17.

최종게재결정 : 2020. 09. 20.

**The Relation among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a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elf-Efficacy**

Ha, A Yeong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among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a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The study also sought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elf-effic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7,315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conducted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tity theory of intelligence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due to the medi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but that the incremental theory of intelligence had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due to the medi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The moderating effect of English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cremental theory of intelligence and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athematics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entity theory of intelligence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entity and incremental theories of intelligence had moderating effects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relation among the 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 a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Keywords: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Sense of community, Subject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Moderated mediation